



독일월드컵 D-30 “가자! 독일로”

나원침 (6824) 김홍두

7 광주일보
제17443호 2006년 5월 10일 수요일

상이군경회 광주지부 전 지부장 구속

광주 북부경찰은 9일 대한상이군경회 광주지부 전 지부장 김모(63)씨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5년동안 20차례에 걸쳐 상이군경회 광주지부 회계장부를 조작, 회사돈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 6천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함께 특별회계 자금 5천여만원을 임무에 위배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국회의원 2명과 검사에게도 후원금 및 여행경비 명목으로 각 100만원씩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배기자 ls54@kwangju.co.kr

검찰,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 기소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9일 장흥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 K(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19일 박준영 도지사 부인 등 16명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장흥읍 모식당에서 3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촌지 주는 학부모 처벌”

학사모, 입법 청원키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교사에 촌지를 주는 학부모를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청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학사모 최미숙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우리 교육계의 촌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글픈 마음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표는 “촌지문제는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의 카다란 집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그 중 한 방법이 촌지를 준 학부모와 이를 받은 교사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법률상 촌지를 받은 교사를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금품으로 받은 것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촌지에 대한 반대급부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따라서 촌지를 수수하는 것 자체로 대가성을 인정, 학부모와 교사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청원을 한다”고 덧붙였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월드컵 관전 이벤트 참여 ‘열풍’

포털·기업체 응원단 모집 공모

축구 마니아들 응모 경쟁 치열

축구 마니아인 직장인 정준표(32·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기업들의 ‘월드컵 보내주기 이벤트’에 매달리고 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06 독일 월드컵’에 직접 참여해 한국 축구 승리를 위해 응원하고 싶지만, 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각 기업들과 포털이 펼치고 있는 이벤트에 응모하고 있는 것이다. 정씨는 자신 뿐 아니라 아내 김모(29)씨에게도 이벤트 참여를 독려했고 있다. 대학생 이모(여·20)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에서 뽑는 블로거 기자단과 현지 통신원 모집에 탈락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모집

하는 통신원에 응모,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 포털과 각 기업들이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정서처럼 월드컵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를 겨냥, 월드컵 보내주기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야후!코리아(http://kr.yahoo.com)는 오는 18일까지 월드컵 통신원 10명을 선발해 현지에 파견한다. 이들은 독일 현지에서 한국전 관람 후 경기소식·독일 경기장 주변 광장·스포츠바 등을 돌며 현지 분위기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국내 네티즌들에게 전

달하게 된다.

네이버(www.naver.com)는 독일 현지에서 국가 대표팀의 경기 소식과 거리응원현황, 독일 현지의 분위기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 전해줄 대학생 10명을 모집했다. 다음(www.daum.net)도 총 20명의 블로거 기자단을 모집, 사진과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국내 네티즌에게 차별화된 월드컵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네이버와 다음의 이벤트에는 수천명의 네티즌들이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향토 유통업체 빅마트도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빅마트 14개 전 점포 고객들을 대상으로 3명을 추첨해 독일 월드컵 입장권과 항공권, 숙박비 등 3박4일간의 경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코카콜라는 오는 20일까지 ‘코카콜라 999 붉은 원정대’ 999명을 추첨, 한국 예선경기 입장권과 왕복항공권 및 숙박권을 제공한다.

이외 기아차·현대차·하나포스닷컴·도시바 코리아·브라운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월드컵 보내주기 이벤트를 펼쳐며 네티즌들을 흥페이자로 끌어당기고 있다.

정준표씨는 “운 좋게 당첨될 경우 인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할 수 있는 독일 현지 응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친 김에 유럽 여행까지 할 수 있어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한국 축구의 선전과 함께 현지 응원의 행운이 주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월드컵 우승 기원 전국 자전거 투어

‘기독 청년면리회 전국 연합회’가 주관한 ‘월드컵 우승 기원과 무료 개안 수술을 위한 전국 자전거 투어 발대식’이 9일 낮 12시 광주 중앙교회에서 열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야설=‘야한 소설’의 준말.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은 음란 소설을 뜻한다.

휴대전화 ‘야설’로 480억 매출

경찰, 이동통신 3사·콘텐츠업체 등 46곳 적발

휴대전화 ‘야설’ 서비스로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동통신 3사와 콘텐츠공급업체(CP)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야설 5천953건을 제공해 479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3~4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근친상간·직장 내

성폭력·불륜·성도착 등 변태적 소재와 노골적 표현이 담긴 5천953편, A4 인쇄용지 4만장 분량의 야설 파일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최근 3년간 야설 매출은 ▲SK텔레콤 157억6천100만원 ▲KTF 24억7천500만원 ▲LG텔레콤 9억1천150만원 등 수익의 41%를 이동통신업체들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의 콘텐츠 검수 및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W사는 관리 대가로 37억 6천100만원을 받았고, KTF와 LG텔레콤의 마스터 CP인 K사와 M사는 각각 6억1천700만원, 5천865만원을 벌어들였다. 야설을 공급한 40개 CP들은 도합 281억5천만원을 챙겼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예자 동원
대주 피오레
1,300여 부대 중 35부대 353부대
문의 (062)366-4220

KAL, 山羊 370마리 뉴질랜드서 공수

○대한항공은 9일 국내 산양 유제품 가공업체의 요청을 받아 KE8584 전세기편을 통해 뉴질랜드로부터 산양(山羊) 370마리를 공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탑재용기까지 포함해 21t에 이르는 산양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보잉 747-400 기종을 투입했는데, 완벽한 수송을 위해 사육사 1명이 화물기에 동승, 식사와 음식물을 제공.

○특히 비행 중 충분한 환기와 습서 28도를 넘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했으며, 배설물 흡수를 위한 충분한 흡수제를 탑재용기 바닥에 깔아 산양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

○대한항공은 지난 1983년 남서울대공원(현 서울랜드) 개장시 동물 78종 418마리를 비롯해 1993년 돌고래 26마리, 1994년 미국산 경주용 말 89마리, 2001년 상어 35마리, 2003년 악어 45마리, 2005년 백두산 호랑이 1쌍 등을 수송했었다고.

/이승배기자 ls54@kwangju.co.kr

100% 핀란드산 자작나무 자일리톨인가?
감미료 중 자일리톨 100%인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인증을 받았는가?

대한민국엔 단 하나, 휘바 뿐입니다!

자일리톨